

# “호남을 넘어 세계로” ‘나주시 40년’ 비전 선포

## 내일 기념식...시정기록물 전시도

나주시가 올해 ‘시(市) 승격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호남을 넘어 세계로’라는 시정 의지를 다진다.

내달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기념식은 ‘나주 40년, 호남을 넘어 세계로 소통하다’를 주제로 시립합창단 식전 공연, 기념사 및 축사, 시민 축하메시지, 40년의 합창, 비전선포식, 기획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나주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참석 인원을 80여명으로 최소화했다.

나주시의 전신인 금성(鎭城)시는 1981년 7월 1일 나주군에서 분리된 나주읍과 영산포읍 통합을 통해 출범했다. 1986년 나주시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0년 후인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시·군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나주시로 이어져왔다.

시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나주가 걸어왔던 지난 40년의 통합과 연대의 역사, 지역발전의 변곡점이었던 시정 주요 성과들을 되돌아본다.

이를 기반으로 호남의 중심,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표방하는 나주 미래 100년의 비전과 포부를 12만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기념식과 함께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는 ‘40년의 발자국, 함께 걷는 오늘’이라는 주제로 지역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시정기록물 전시회가 열린다.

시 승격 당시부터 40년 간 나주시의 조직·행정체계, 주요 정책·행사 등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사진, 상장·상패, 업무수첩, 신분증, 의류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선보인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40년의 경험과 저력을 자양분 삼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의 중심,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엘로우시티 장성 1기 시민정원사 수료식이 지난 24일 장성군 농기계 교육장에서 열렸다. <장성군 제공>

## 장성 도시 미관, 시민정원사가 맡는다

### 1기 전문가 46명 배출...2022년까지 100명 육성

장성군이 삶의 터전에 향기를 더해줄 46명의 주민 조경 전문가를 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농기계 교육장에서 지난해까지 교육을 마친 1기 시민정원사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에 배출된 시민정원사들은 지역 곳곳에 자리잡은 마을 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기 시민정원사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 주민들에게는 정원 조성법 관리법 등 전문 지식 습득과 현장 실습의 기회가 제공됐다.

1기 시민정원사들은 교육 과정 중에도 도시를 아

름답게 가꾸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제1황룡교, 방구다리 회전교차로, 애플탑 등 8개 지역에 정원을 조성해 경관을 산뜻하게 변모시켰다. 교육을 마친 후에도 ‘엘로우시티 시민정원사 봉사회’를 결성해 방치돼 있던 공간에 정원 4곳을 신규 조성하기도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버려진 땅에 꽃을 피우는 시민정원사는 장성군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리더들”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100명의 시민정원사를 육성해 정원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사계절 향기로운 엘로우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한옥 민박·청정 갯벌·소나무숲·환상 낙조...

함평으로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인근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이 여름철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바다와 인접해 멋진 풍광을 자아내는 주포지구 한옥마을 전경. <함평군 제공>

## 돌머리해수욕장, 접근성 뛰어나고 기반시설 탄탄...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인기

함평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돌머리해수욕장에 인접한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이 여름철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함께 잘 보전된 갯벌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돌머리해수욕장, 환상적인 함평만 낙조 등 볼거리뿐만 아니라 해안도로를 따라 즐비한 식당, 카페 등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도 4개 노선, 서해안 고속도로, 광주-

무안 고속도로가 연계되는 등 접근성도 뛰어나 인근 도시민들이 근교에서 자연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총 50동의 한옥 중 31동이 한옥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포 한옥마을은 특히 주말이면 한옥 민박을 체험하고자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빈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함평군이 추진 중인 ‘체류형 관광’과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최근 캠핑과 차박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이어

지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빠어난 경관, 편리한 기반시설, 민관협력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주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전·안심 ‘힐링 체류형 관광’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 담양군, 치매 어르신 힐링 ‘자연을 벗삼아’ 호응

담양군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자연을 벗삼아’를 진행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기관인 월산면 소재 용오름 자연학교와 협업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로즈마리 등 허브식물을 활용한 향기테라피, 블루베리 수확, 다육 테라리움 체험 등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사진>

이날 참여자들은 치유농업의 소재인 식물자원을 가꾸고,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감각기관의 충분히 자극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같은 어려움을 가진 가족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순복 담양군 보건소장은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며, 감각기관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이번 과정을 통해 대상자와 보호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착한 임대인’ 세계 혜택

### 화순군, 7월분 재산세 감면

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한 뒤 군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로,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 임대인이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의 경우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며 한도는 50% 이내다. 임대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2020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과 부품 수입업체 가운데 전년도 1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